

● 후속세대 양성 기획 4

# 권채연양, 캐나다 앤 앤더슨 고등학교 수석 졸업

## 리더십, 봉사정신, 인성 두루 갖춘 안동권문의 자랑스런 후손



3500여 명이 참석한 앤 앤더슨(Dr. Anne Anderson)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영예의 수석 졸업을 차지한 권채연양이 졸업 연설을 하고 있다.

권채연양(17)이 캐나다 에드먼턴에 위치한 앤 앤더슨(Dr. Anne Anderson)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영예의 수석 졸업을 차지했다. 이 자리에서 권채연양(17)은 졸업생을 대표하여 졸업 연설을 하였다. 그는 "제 뿌리와 유산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한국어로 감사의 인사를 한다"고 말하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캐나다 한국인 장학재단으로부터 2023년 자원봉사 우수상과 2022년 학업 우수상을 수상하여 에드먼턴 한인커뮤니티의 격려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장학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첼시는 에드먼턴 공립학교 학생 상원, DAAH의 청소년 참여 포커스 그룹 및 피어 튜터링 클럽의 일원으로 시간과 재능을 투자했습니다. 상원의원으로서 첼시는 디비전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고 참여하고, 공교육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관련 교육 문제에 대한 관점을 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력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학생의 목소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녀는 집단적 문제 해결과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합니다. 학교 기반 의사 결정과 지역 자치를 지원하는 새로 개편화된 거버넌스 모델에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다양성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상황 인식을 보장합니다. 학업성적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의 개인적인 도전에서 영감을 받은 Chelsea는 튜터링을 위해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과 연결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 커뮤니티에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Peer Tutoring Club을 설립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권채연양은 에드먼턴 공립학교 최고 영예인 2024 마이클 A. 스트렘브스키 우수상을 수상하여 장학금의 일부를 한인단체에 기부했다. 이 상은 전체 학생 중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리더십, 봉사, 인성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3명의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상이다. 아래는 현지 언론인 에드먼턴 저널(EADMONTON JOURNAL) 6월 17일자에 실린 권채연(Chelsea Kwon)양의 인터뷰 기사 일부와 소개 내용이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나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다른 사람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단지 상황 때문이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

권은 큰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고, 저는 운 좋게도 오늘날까지 저를 "공주"라고 부르는 사랑스러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저의 영웅은 엄마 아빠입니다. 부모님은 항상 제가 탐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성실하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내가 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시도했습니다.

권채연양은 운 좋게도 엄마 아빠가 공주라고 부르는 사랑스러운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엄마 아빠를 영웅으로 생각한다고 고백한다. 권채연양은 알버타대학 공과대 교수인 권태중 박사와 어머니 이용빈씨 사이의 1남 1녀 중 장녀로 2006년생이다. 위터루대학 공대에 진학할 예정인 권채연양은 권중달 대총회 종사연구위원(중앙대 명예교수)의 손녀이기도 하다. 권중달 교수는 나는 손녀에게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었으니 너는 우리 가족의 자산이지만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의 자산이니 그 싹을 잘 키워라"고 했지요. 라고 격려했다 한다. 또한 인터뷰에서 "우리 집안에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지요. 한 사람이 잘하면 백 사람 천 사람 만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손녀에게서 그 싹을 보는데 아직은 싹이니까 큰 인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그만큼 도와줘야 하지요. 마음으로도 응원해 줘서 그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세요"라고 말했다.

권중달 교수는 얼마 전 자치통감을 세계 최초로 완역한 바 있으며, 28권이나 되는 거대한 세트를 대중회에 기증했다. 또한 수년 동안 '안동권씨 종보'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안동권씨 제50차 대총회 정기총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속 자치통감을 번역 중에 있다.  
권중달 교수의 아들 권태중 박사는 캐



권태중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권현울(Brandon Kwon)군

나다 알버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6월 17일 2024년 '한국과학기술학회상'을 수상했다. 또한 캐나다 알버타주 밴프에서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2024 캐나다-한국과학기술학회'에 참가해 'AI 관련 도로관리기술'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 밴프에서 캐나다에서 열린 ITD(International Transportation and Development) 학회에서 '연구 및 개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권태중 교수의 아들 권현울(Brandon Kwon)군 또한 중학교 졸업식에서 상을 받았고 학교에 명패가 새겨졌다고 한다.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손녀 삼대에 걸쳐 발군의 실력과 뛰어난 업적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안동권씨는 양촌 권군이 조선 최초 대제학을 지내고, 그 아들 지재 권재와 손자 소헌당 권람이 대제학을 지내 삼대에 걸쳐 대제학을 이어받아 앞으로 권채연양과 권현울군이 안동권문의 인재이자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족친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바란다.

권현울 편집국장

# 서울산악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안동권씨 서울산악회(회장 권영복) 제 2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6월 16일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후문에 위치한 식당 '그집'에서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회원들은 오전에 제338차 정기산행으로 천장산과 의릉을 다녀온 후 '그집'에 집결하여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정기총회에서는 권중훈 전 회장에



권정찬 신임회장

안동권씨 산악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산악회원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전달했다. 임원 개선에서는 권정찬 회원을 신임회장으로 추대하고, 고문에는 권정섭, 권영서, 권정수, 권중훈, 권오성, 총무국장에는 권혁구, 부회장에는 권영을, 권오의, 권순휘, 권경탁, 권오준을 위촉했다. 감사에는 권중우, 권오흥을 선출했다.

권오윤 등반대장은 유임됐다. 권영복 회장은 이임사에서 그동안 바쁜 일정임에도 매일 빠지지 않고 참여하여 회원 간에서도 단합하고 화합하여 산악회를 더 독특하게 발전시킨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신임 권정찬 회장을 중심으로 더욱더 화목하고 하나 되는 산악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임 권정찬 회장은 취임사에서 총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신 전임 집행부와 도와주신 모든 회원들께 정말 수고 하였고 감사하다. 또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회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마음을 모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산악회가 될 것을 다짐한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 활기차고 정이 넘치는 산악회가 되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현울 편집국장

# 2024년 정조공파 제18회 경로화합잔치 성대하게 개최



정조공파(正朝公派: 회장 권순복)가 주최하는 제18회 경로화합잔치가 안동시 송현동 축협하나로 마트 2층 목향대연회장에서 고문, 원로, 3개 문중 종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정조공파 역대 회장을 역임한 권기만, 권기룡, 권오탁 등 3명의 고문을 비롯하여 내빈으로 권철환 안동총친회장, 권재주 안동원로원 의장, 권정창 대총회 제례위원장, 권현중 부호장공파총회장,

권오의 대총회 안동사무국장, 권오식 좌윤공파 부회장, 권영건 안동권씨종보 보도부장, 권기원 재안파총회총합의회 사무국장이 참석, 자리를 빛내주었다. 정조공파 종원이 권기창 안동시장은 남미(南美) 페루에 업무 협의자 해외출장을 가는 바람에 권 시장 부인 황순녀 여사가 참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권영창 안동권씨 대총회 회장, 권철환 안동총친회장, 권오의 정조공파 노하문중 회장 등 5명이 대령 화환을 보내왔다.

권오길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 국민의례, 시조 묘소 참배, 상음례, 내빈소개, 회장 인사, 축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순복 회장은 내빈을 소개한 후 인사말에서 "경로화합잔치는 족친간의 새로운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말하고 "해마다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족보 제작, 인터넷 전자족보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순택 주손은 격려사에서 "경로 화합잔치를 축하하는 뜻에서 내빈을 비롯 족친들이 많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어 대단히 고마우며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기원 한다"고 말했다. 권철환 회장은 축사에서 "안동권씨 15개 파 가운데 정조공파가 으뜸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현 회장이 젊어서 일을 잘하고 안동시장을 보유한 파"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안동권씨지족육체대회 때 전국 최초로 시조 묘소에서 성화를 제화하고 새천년부녀봉사대 150여명이 관중 3천여 명을 대접했다"고 회고하고 "앞으로 시조님의 영정을 모실 영당을 건립할 계획이며 안동에서 최고의 성(姓)으로 살아가자면 문치야 한다"고 다짐했다.

권재주 의장은 축사에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건강이 좋아서 100살을 살 수 있으며 건강은 남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리해야 하며 앞으로 멋지게 살다가"고 호소했다. 권기창 안동시장 부인 황순녀 여사는 축사에서 "안동시장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저가 나왔다"고 소개한 후 "여러분들은 건강이 최고이니 100세까지 사실 것과 오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길 국장은 행사는 참석하지 못한 김영동 국회의원이 보낸 축전을 낭독하기도 했다. 또 권순복 회장은 권영탁씨(91) 등 90세 이상 남녀 원로회원 5명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면서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위로금 전달식이 끝나자 불교기를 걸고 점심 식사와 떡, 수박, 술, 음료수 등 푸짐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주최 측은 권오윤 고문이 기증한 타일 1장씩과 주최 측이 마련한 간 고등어 한 손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으며 경품 추첨에서 참석자 전원에게 쌀, 국수, 라면, 화장지 등 생활에 필요한 선물 한 가지씩을 전달하기도 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동정**

▲ 권성룡 박사가 6월 12일 공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제8대 총장에 취임했다. 권성룡 총장은 경북 안동 출생으로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수학교육 석,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2002년부터 공주교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영재교육원장, 기획연구처장, 산학협력담당 등을 역임했다.

▲ 권신오 전남CBS 대표가 광주CBS 대표에 지난 3월 취임했다. 권신오 대표는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2년 광주CBS 보도제작국 기자를 시작으로 보도제작국장, 선임기자 등을 역임했다. 2021년 5월부터 전남CBS 대표를 맡아 오다 이번 광주CBS 대표까지 맡게 되었다. 저서로는 30여년 기자 생활을 해오면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펴낸 '현직 기자가 쓴 보도자료 필살기' 등이 있다.

▲ 권재은 아이엠피(IMP) 대표가 지난 4월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 안동융합회 제10대 회장에 취임했다. 권재은 회장은 안동 경일(14회)과 안동대학교 식물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인터넷 및 SI 개발 서비스 전문업체인 아이엠피(IMP) 대표를 맡고 있다. 권 회장은 안동중앙로타리클럽 회원, 안동경찰서 아동안전협의회 위원, 안동시한책읽기 운동본부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왕성한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실천해 온 인물이다. 안동융합회는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업종까지 정보와 기술, 인적교류를 통해 기업의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신사업을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단체다. 현재 안동지역 90여 개 기업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 권대일 전북지방방무청장이 지난해 12월 제24대 국립서울현충원장에 취임했다. 권대일 청장은 경북 문경 출신으로 문창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2002년 제4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직사회에 입문하여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사무국 제정국장, 제44대 전북지방방무청장, 국방부 국방정책실 교육훈련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 권석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이 6월 3일 국립중앙과학관 제46대 관장에 취임했다. 권석민 신임 국장은 서울대학교 지리학 학사와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고, 경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행정고시(39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국립과천과학관 경영기획과장, 과기정통부

# 안동권씨문인 태사문학회 제3집 『감자꽃』 출판기념회 및 총회 개최

지난 6월 28일, 서울시 종로구 고봉삼계탕에서 안동권씨 문인들의 모임인 태사문학회(회장 권필원) 태사문학 제3집 『감자꽃』 출판기념회와 총회가 열렸다. 이는 종종 문인들의 뛰어난 문학 작품들을 소개하고 안동지역에 이르기 위한 모임이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장소를 빌려준 고봉삼계탕 주인 권오을 전 국회의원(전 국회의사무총장)이 자리를 함께하여 축하 계획을 잡았다. 91세 권재중 수필가는 멀리 평택에서, 역시 연세가 많으신 권은영 시인은 천안에서 와서 태사문학에 대한 애정을 더하였다. 멀리 캐나다의 권천학 시인은 단톡을 통한 축전을 보내기도 하였다. 모두 60여 명의 회원 중 참여한 문인은 10분에 한정되었지만 열의는 남달랐다.  
이어 권순자 편집국장의 결산보고에 의하면, 사실상 출간비의 대부분은 권필원 회장의 후원금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좋은땅> 출판사를 선택하여 출간비를 아낀 결과였다고 보고하였다. 많은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을 더하여 다음 호의 출간 비용까지 잔고로 남아있다고 보고하자 회원들의 박수가 있었다.  
권혁모 고문이 총회를 진행하였는데, 먼저



임원 개선은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하여 유임하는 것으로, 안동권씨 대총회 부회장이시조시인 권오윤님을 고문으로 추대하였다. 발전 방향으로 회원 확보와 (안동권씨종보)의 문예 지면에 본 회원의 작품을 다수 추천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종보의 구독 확장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그리고 일 년에 한 번은 반드시 출판기념회를 겸한 총회를 하며, 특히 신년, 송년을 겸한 임시 모임을 통하여 회원 간의 우정과 문학적인 역할을 쌓을 수 있도록 다짐하며 폐회하였다.  
권혁모 태사문학회 고문